

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7(장학위원회)

**Y-틴, 대학·청년Y
우리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YWCA 한국YWCA연합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역협력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8년 6월호
June
Vol.551

특집 2018 '여성평화걷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기획

여성의 눈으로 본 지방선거
페이미투(PayMeToo), 청년부터 설득하라

이슈

생활 속 방사능 '음이온'의 배신

이달의 현장

왜 양성평등은 성평등으로 바뀌었을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교회는 어떻게 세 번째 '권력'이 되었는가



위장결혼식 사건과 서울YWCA 강당



서울시 인권현장 표지석

“홍성엽군과 윤정민양이 여러 어른들과 친지를 모시고 혼례를 올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979년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YWCA 강당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은 연세대 복학생 홍성엽이고, 신부는 윤정민이었다. 주례는 함석헌 선생으로 백기완, 한명숙, 김병걸 등 500여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사회자 김정택 기독교청년협의회장이 결혼식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결혼행진곡은 울리지 않았다. 신랑 홍성엽이 등장하자 사방에서 유인물이 뿌려졌다.

신랑은 우렁차게 선언문을 낭독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하는 취지문이었다.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구호를 외치려는 순간 경찰과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98명이 연행되고, 거리시위를 벌인 44명이 체포됐다.

이날 결혼식은 박정희 사후 처음 모인 민주인사들이 독재세력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막기 위한 국민대회였다. 신부 '정민'은 '민주정부(民政)의 앞 글자를 따서 지었다. 위장결혼식 구상은 5.16쿠데타 직후인 1963년 김영삼 등이 서울 종로 백조그릴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박정희 군정연장 반대시위를 벌였던 것에서 나왔다.

당시 명동에서 손꼽히는 현대식 건축이었던 서울YWCA 강당은 문화, 학술, 교육, 체육 등 다목적 행사장이자 가장 인기 있는 예식장이었다. 550명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재야단체들의 행사장으로도 널리 활용되었다. 1980년 3월 26일 연금해제로 8년 만에 시민 앞에 선 김대중 강연에는 2천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YWCA는 위장결혼식을 사전에 알았을까. 당시 서울YWCA 총무(사무총장)였던 김형 연합회 명예연합위원에 따르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엄군은 귀신처럼 들이닥쳤다. 참석자들이 4층 사무실까지 도망오자 YWCA 직원들은 성심껏 그들을 도왔다. 가짜결혼식까지 하면서 저항할 수밖에 없던 처절한 역사는 지금 한국YWCA회관 정문 앞 바닥에 'YWCA 위장결혼식 현장'이란 서울시 인권현장 표지석으로 그때를 증언하고 있다.



1980년 김대중 강연이 열린 서울YWCA 강당



1979년 11월 24일 서울YWCA 위장결혼식 현장

2018.6 한국YWCA



표지이야기

5월 26일(토) 통일대교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2018 국제여성평화경기에 참가한 YWCA 청년회원들이 평화를 염원하며 힘차게 뛰어오르고 있다.

2018년 7·8월 주요일정

7월 17일

경기지역위원회 회원대회

7월 19일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

8월 6일~7일

Y-틴 전국회원대회

8월 21일~24일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8월 23일~25일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

8월 29일

중부지역위원회 회원대회

8월 30일

북부지역위원회 회원대회

제54권 제5호 통권 551호

2018년 6월 27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문미란·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신미희·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04 **이달의 생각** 곧 평양에서 만납시다 | 한미미

05 **말씀묵상**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 박보경

특집 '2018 여성평화경기'

06 ① **현장**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 편집실

08 ② **화보** 여성 없이 평화 없다 | 편집실

10 ③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 백보람

기획 '지방선거와 여성'

12 ① 여성의 눈으로 본 지방선거 | 진주원

14 ② 여성할당제 개혁해야 '아재정치' 깬다 | 마정윤

16 ③ 대학·청년Y 청년유권자행동 SNS 릴레이캠페인 | 김수진

초점 '동일노동 동일임금'

18 ① **좌담회** 페이미투(PayMeToo), 청년부터 설득하라 | 문윤희

20 ② **화보** '동일임금의 날' YWCA 전국캠페인 | 편집실

22 **쟁점** 낙태죄 위헌소원 '전면금지, 전면허용' 넘어 해법 나올까 | 박현정

24 **이슈** 생활 속 방사능 '음이온'의 배신 | 김혜정

26 **이달의 현장** ① YWCA 지속가능포럼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 서형원

28 **이달의 현장** ②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북부·서부지역위원회 | 노인자·안영희

30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① 세종YWCA 등불아간학교 | 김영옥

32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② 고양·의정부·남양주YWCA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정선영

3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책 <권력과 교회> | 양희승

36 **연합회 소식**

41 **회원YWCA 소식**

곧 평양에서 만납시다



한미미
한국YWCA연합회 제2서기·실행위원
세계YWCA 부회장

살다보면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북한 조선그리스도인 맹(조그런) 대표들과의 만남은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특별한 만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년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왔다. 유방암 초기였지만 ‘암’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았다. 두 번의 수술과 3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10일도 지나지 않아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한반도에큐메니컬포럼 EFK(Ecumenical Forum for Korean Peninsula)에서 초청장이 왔다.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조그런 대표들이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참석동기가 되었다.


EFK가 열리는 홍콩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만남은 시작되고 있었다. 공항을 나가다 픽업서비스 직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조그런 대표들과 마주쳤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임을 느끼며 차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들이 한 시간 넘게 못 찾은 사람을 내가 무슨 재주로 찾을까 싶으면서도 무조건 뛰기 시작한 지 20분 만에 엉뚱한 곳에 있는 직원을 발견했다. 조그런 대표들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픈 것도 잠시 잊었다.

두 번째 만남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하게 된 때였다. 수술 후 수없이 물어본 질문은 ‘왜 내게 암을 주셨는지’였다. 뜬금없이 조그런 분들에게 그 이유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제가 사실 좀 아파요. 얼마 전

유방암 수술했어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왜 왔느냐”고 되물었다. 그때 깨달았다. 주님이 내게 이 병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임을. “조그런 대표 분들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들은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마지막 날 저녁 만찬, 중요한 실무역할을 담당하는 조그런 부위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무언가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준비해온 게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제일 잘하는 웃음을 주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이 주님이 주신 세 번째 기회임을 알았다. 평소 알고 있던 마술쇼 몇 가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다시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아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EFK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그런 대표 중 보위부 분이 다가왔다. “아프지 말고 곧 평양에서 만납시다. 내레 한미미 선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의 ‘울림’은 지금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다. 그날 이후 나에겐 평양은 더 이상 먼 곳이 아니게 되었다.

올해 6월 중순 EFK 국제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두 명의 조그런 여성대표가 참석한다. 주안에서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특별한 인연임을 알기에 이번에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길 소망한다.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박보경
장로회신학대 교수·목사

로마서 15장 22-29절

(전략)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기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매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후략)

로마서를 보면 신앙적으로 깊고 심오한 신학을 펼치고 있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다릅니다. 냉철한 모습이 아니라 뜨거운 선교사, 열정적인 전도자로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 열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비전을 함께할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나아가 서바나(스페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길 바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뚝 떨어진 소망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꿈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예상하지 못한 길로 흘러 새로운 곳에서 계속 복음전도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로마를 넘어 서바나로’의 꿈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바울의 ‘거룩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동역자를 만들어가며 한걸음씩 내딛는 그의 용기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2018년 YWCA의 거룩한 열망은 무엇인가요? 바울처럼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YWCA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YWCA는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기관입니다. YWCA가 가야 할 곳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YWCA의 많은 사업을 하나로 묶는 거룩한 열망을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부분적이고 왜곡된 복음이 아닌 다양한 사회, 계층, 사람들에게 통전적인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YWCA의 로마는 어디인가. 그 너머의 서바나는 어디인가. 그 부르심에 대한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열망은 제 안에 이어지고 또 YWCA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갖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하는 소통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YWCA도 계속해서 좋은 동역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YWCA에는 좋은 동역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의 열망을 함께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에 YWCA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4년째 계속되는 여성평화걷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행진은 올해도 계속됐다. 남북교류가 중단되다시피 한 2015년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중단하면서 시작한 국제여성평화걷기가 4년째를 맞았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국내 27개 여성·평화단체와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노벨위민즈이니셔티브(NobelWomen'sInitiative)로 구성된 2018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는 5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여성평화촛불행진,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국제여성평화걷기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한반도에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 만큼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여성 없이 평화 없다!(No Women, No Peace)를 외치는 함성은 뜨거웠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맥과이어, 여성평화단체 코드핑크 창립자 미디어 벤저민을 비롯한 13개국 30여명의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도 적극 목소리를 냈다.

국제여성평화걷기 사전행사로 5월 23일(수) 서울 광화문에서 여성평화촛불행진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판문점선언 지지와 북미회담 성공 기원을 담은 '여성평화

춤'을 펼친 뒤 주한 미대사관을 거쳐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까지 촛불을 들고 행진했다. 5월 24일(목)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을 열어 여성과 군사주의, 여성이 만드는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5월 25일(금)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다. 국제여성평화걷기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돌발 상황에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과 국내 30여개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은 당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회담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에 성명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5월 26일(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과 시민 1천여명이 국제여성평화걷기를 위해 모였다. YWCA는 대학·청년Y 회원 7명과 거제, 고양, 남양주, 대구, 서울,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인천, 청주, 파주 12개 회원YWCA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평화의 열림' 출정식과 길놀이로 국제여성평화걷기의 막이 올랐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남과 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힘은 어떤 무력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통일대교부터 도라산역 평화공원까지 5.5km를 걸었다. "쪽 가면 개성, 그리고 평양이야" 도로 표지판에 적힌 개성, 평양이란 글씨는 남북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보여줬다.

하지만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 앞에서 행진은 멈춰야 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풍물패 공연, 평화기원 오방천 대동놀이 등 '평화의 어울림' 문화제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갑작스런 김문강화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는데, 이날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렸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다음날 미국은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뜨거운 햇볕 아래 한 발짝씩 내딛은 여성들의 발걸음이 평화의 초석이 된 것이다.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선언문

4·27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남과 북,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2.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라
3. 유엔안보리결의 1325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
4.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라
5. 민간인 교류 전면 자유화와 이산가족 재결합 즉각 실시하라
6. 모든 국가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시폭력을 금지하라
7. 무고한 시민들을 억압하는 대북제재를 철회하라
8. 군비를 축소하여 여성의 복지와 환경보호에 사용하라

평화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길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남과 북의 모든 시민들, 전 세계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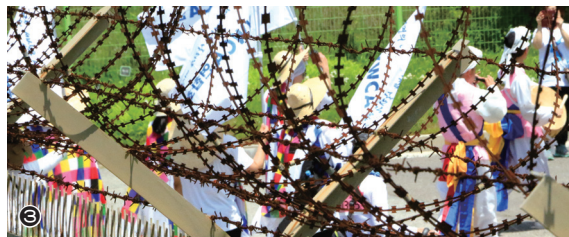
2018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Women Cross DMZ, Nobel Women's Initiative



여성 없이 평화 없다!
No Women, No Peace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가 5월 26일(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와 도라산 평화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YWCA에서는 연합회와 12개 회원YWCA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학·청년Y 회원 7명이 참석해 YWCA 깃발을 펴며 경쾌한 분위기로 행진을 이끌었다. 이날 현장을 사진으로 구성했다.

①어린이 참가자들이 통일대교를 걷고 있다. ②참가자들이 남북출입국사무소 앞에서 풍물패 가락에 맞춰 도라산 평화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③대동놀이에서 조각보를 입고 있다. ④청년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매카이어와 사진을 찍고 있다. ⑤평화를 염원하며 참가자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청년회원 소감

처음 걸어본 통일대교,
처음 외쳐본 평화



차민규 거제YWCA 회원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동부지역 대표

요즘 우리나라는 온통 남북문제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남북이 평화를 이루고자 비핵화,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임진각부터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5.5km를 걷는 국제여성평화걷기에도 참가했다. 해외 여성평화운동가, 국내 여성단체 활동가, 가족, 친구, 개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뜨거운 날씨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평화를 기원하는 발자국을 찍었다.

민간인 통제구역의 상징인 철조망을 보며 가족이 남북으로 떨어진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을지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전쟁과 그 이후 대립의 현실을 느꼈다. 통일대교를 지나면서 개성, 평양이 적혀 있는 도로 표지판을 보았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라 안타깝지만, 열려 가보고 싶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느낌도 들었다.

이날 햇빛은 유난히 강렬하고 더웠다. 두 시간 넘는 거리를 뒤흔 별에 걷는 게 힘들었지만 도라산 평화공원에 도착해 한숨을 돌렸다. 마지막 행사인 대동제는 정말 신났다. YWCA 깃발을 들고 나와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경쾌한 팽과리 리듬에 취

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즐겼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 세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초·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평소엔 평화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걸음속에서 그 뜻을 헤아려보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경쟁적이고 개인적 이기심과 집단적 이기주의에 기울어진 삶을 살아온 것 같다. 통일대교를 걷는 것도 처음,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노래 부르고 깃발을 휘날려 본 것도 처음, 통일이라는 말도 큰소리로 처음 외쳐 보았다.

친구들과 걸으며 해방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서 더 힘이 났다.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

지금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걷기대회였다. 언젠가 우리가 걸었던 통일대교와 도라산 길로 마중 나온 북한 사람들과 함께 걷어가는 꿈을 꾸다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 YWCA 청년 참가자들이 대동제를 즐기고 있다



13개국 여성평화운동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여성참여와 역할을 토론했다. (2018 여성평화경기 제공)

백보람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간사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18 여성평화경기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YWCA연합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세상이프토피아,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연대,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가 공동주관한 국제여성평화 심포지엄이 5월 24일(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주제는 '세계 여성들, 평화를 말하다'로 여러 나라에서 반전, 반핵, 반군사주의, 환경보호 등을 펼치고 있는 13개국 여성평화운동가들이 참석해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미투운동, 4.3과 강정, 군사주의, 균축, 대인지뢰, 에코페미니즘, 동북아 평화 등을 놓고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판문점선언을 적극 환영한 이들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세계 평화와 직결된 한반도 평화의 중

요성, 갈등예방과 해결,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 성공적인 평화협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했다.

여성들이 투표할수록 전쟁은 줄어든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매과이어(영국 북아일랜드)는 '새로운 평화와 페미니스트 미래로의 안내'라는 발표에서 대립이 극으로 치달던 북아일랜드 내전을 떠올리며 수천 여명의 여성들이 '폭력근절'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길거리 시위에 나섰다 말했다. 당시 여성들의 평화시위는 정치적, 인종적 내전으로 폭력이 만연한 상황을 평화로 전환할 방법은 오직 대화와 협상, 타협을 통한 해결임을 일깨워줬다. 매과이어는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폭력과 갈등 해결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폭력의 종식이 곧 평화정착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1985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전쟁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의 메리 와이인 애쉬포드(캐나다)는 "더 많은 여성들이 투표할수록, 여성들의 투표참여가 길수록 국가가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연구논문을 인용하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무력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력충돌 가능성을 5배 줄일 수 있는 여성의 사회지위 조건으로 여성참정권 기간과 함께 의회 여성 비율 5% 늘리기, 출생률 1/3 줄이기, 여성노동자 비율 5%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비무장지대에 200만발 이상 매설된 지뢰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한반도 대인지뢰 현황을 들은 참석자들은 그동안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사고가 일어나면 한국전쟁 당시 지뢰거나 북한군이 매설한 것인 줄 알았는데 1960년대 이후 미군과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만 100만 발이 넘는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가 오려면 동북아시아에서도 새로운 평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여성평화운동 과제로 동아시아 균축운동을 통한 반군사주의 운동, 북한 여성들과 협력하여 공정하

고 평등한 경제개발 모델 만들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에 동북아 여성시민사회 참여구조 만들기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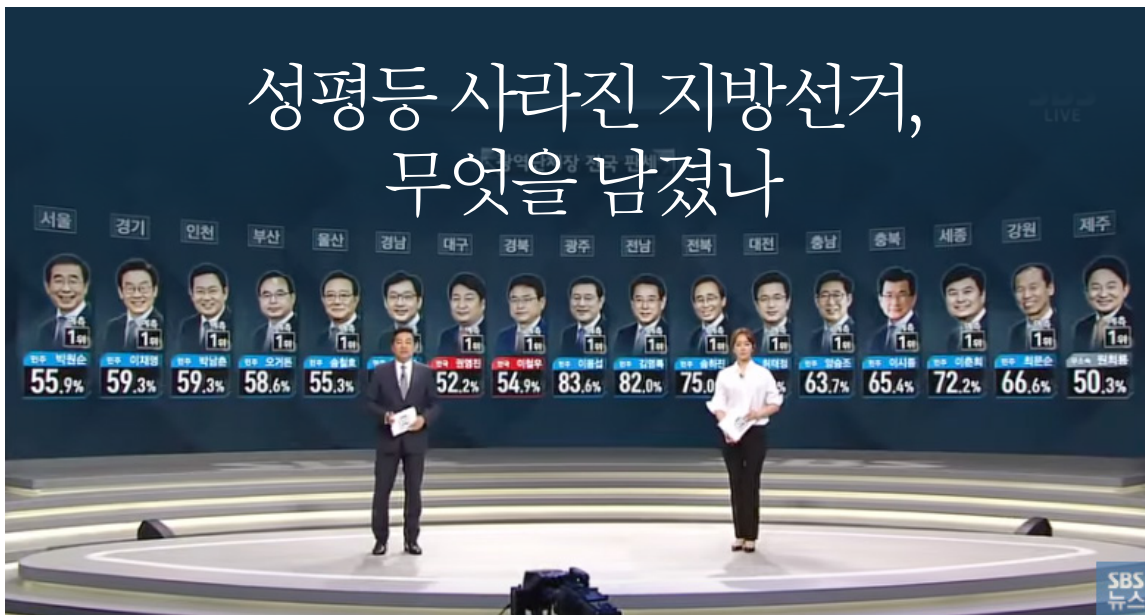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남북간, 북미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반기면서도 남한의 경제활로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면 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이 산업화 시기 겪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성평등, 환경과, 도시집중과 빈부격차 등 문제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은 한국 여성들이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이념갈등을 겪으면서 연대함으로써 평화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여성들은 '새판짜기' 개념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가치, 비전, 인간관과 철학을 가진 여성평화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다양한 논의 가운데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다.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노벨문학상 작가 스베들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말하는 것처럼 전쟁 아닌 평화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2부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이 모여 행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2018 여성평화경기 제공)



SBS가 6월 13일 저녁 제7회 지방선거 개표와 관련,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중년남성’ 독무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주의가 해체되는 등 한국 정치사에서 각종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 대신 정치권의 남성주의는 더욱 공고해지는 오점도 기록됐다. 40, 50대 중년남성이 독점한 정치판에서 여성 정치인의 성장은 미약했다.

우선 선거별로 당선된 여성의 숫자를 살펴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17명 중 0명(0%), 기초자치단체장은 226명 중 8명(3.54%), 광역의원원은 824명 중 160명(19.42%), 기초의원원은 2,526명 중 900명(30.76%)이다. 또 전국 12곳에서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배출되지 않았다.

지난 6회 선거와 비교해 기초단체장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감소한 반면, 광역·기초의원원은 대폭 늘어났다. 기초단체장은 9명에서 이번에 8명으로 3.98%에서 3.54%로 감소한 반면 광역의원원은 14.3%에서 19.42%로, 기초의원원은 25.3%에서 30.76%로 각각 5%p 가량 늘었다. 이로써 좋

은 자리는 남성이 독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성 기초단체장이 감소한 직접적인 요인은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이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17명의 전국 시·도지사 뽑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는 전체 91명 중 6명(8.5%)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모든 후보를 남성으로만 채웠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여성 광역단체장은 아직까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홀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단체장 226명 가운데 여성 공천은 11명(4.86%)에 그쳤고, 7명이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은 8명을 공천해 1명이 당선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11명을 공천해 7명 당선, 새정치민주연합이 8명을 공천해 2명이 당선된 바 있다.

여성, 낮은 공천율 VS 높은 당선율

그나마 부산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성 구청장

이 3명이나 당선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당의 약세지역이어서 경쟁이 덜했던 만큼 자치구 16개 중 여성 4명(25%)을 공천할 수 있었고, 이중 정미영·서은숙·정명희 후보 3명(75%)이 당선됐다.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3명(12%)의 여성을 공천했고 이중 김미경·김수영 후보 2명(66%)이 당선됐다. 여성이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여성을 배제한 공천뿐만이 아니었다. 강원도지사 3선에 도전하는 최문순 후보가 ‘원팀’을 강조하며 남성일색인 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춤을 추는 홍보영상은 여성 유권자들의 정서, 나아가 시대정신과 얼마나 괴리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후보자가 19명이나 되는데 여성은 없다. 중년남성이 과다 대표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 그대로 녹아 있다. 여기에도 최 후보는 ‘강원안구복지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선거 전면에 딸을 내세워 여성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같이 척박한 토양에서도 여성정치 희망의 씨앗은 싹을 틔웠다.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녹색당 신지에 후보가 1.67%의 득표율로 원내정당인 정의당 김종민 후보(1.64%)를 제치고 4위에 오른 일은 지방선거를 통틀어 손꼽히는 ‘이변’이다.

신 후보는 “얼마만큼 득표하느냐보다 페미니즘 정치에 젊은 여성들이 열망하고 있음을 선거기간 계속 느꼈다”고 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2년 후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원내정당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신 후보의 페미니즘 정치는 약자와 소수자 등 정치에서 밀려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평등한 정치를 상징한다. 적어도 50대 이상의 남성들만 가득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지도와 ‘원팀’ 동영상에 국민 대표를 뽑는 정치영역에서 더 이상 내걸려서는 안되며,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방향성이 담겼다.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여성비율

구분	당선인	남성		여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단체장	광역(시·도)	17	100%	0	0%
	기초(구·시·군)	226	96.46%	8	3.54%
광역의원	지역구	737	86.70%	98	13.30%
	비례	87	28.74%	62	71.26%
	합계	824	80.58%	160	19.42%
기초의원	지역구	2541	79.30%	526	20.70%
	비례	385	2.86%	374	97.14%
	합계	2926	69.24%	900	30.76%
교육감	교육감	17	88.24%	2	11.76%
국회의원	재·보궐	12	100%	0	0%

‘페미니스트 정치’가 보여준 희망

선출직 후보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저항운동도 전개됐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후보가 모두 남성인 경우 기표 대신 ‘여성정치인’이라는 글을 써서 무효표를 만들어 투표하고, 온라인에서 ‘#투표용지에_여성정치인’이라는 인증샷을 올리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 변혁으로 불리던 미투(#MeToo)운동이 이번 선거에 미친 영향은 짙고 넓어가야 한다. 정당별 후보 공천을 앞두고 미투가 확산되고 문제 있는 정치인들이 낙마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성 당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 즉 여성이 정치에서 배제돼온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만큼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는 2년 후 총선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8만 2,874표를 받은 신지에 후보는 “페미니스트를 2~3만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분이 공감했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자연스럽게 한국사회 주류로 확산되고, 이를 통해 정치권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선거를 동력으로 삼아 성평등 개헌 논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할당제와 정당 민주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YWCA가 소속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4월 6일(금) 국회 앞에서 '10차 헌법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정윤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위원·아주대 강사

여성 당선자는 왜 늘지 않는가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첫 선거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됐다. 그러나 선거기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거대 양당의 '아재정치' 물결이었다. 드물게 지방선거에서 사라진 '여성'을 이야기하며 언제쯤 여성 도지사와 시장을 만날 수 있을까를 묻는 기사도 띄었다. 낯설지도 새롭지도 않은 모습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오래 전부터 요구되었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여성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한 번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적이 없다.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95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이번에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여성후보자는 6명으로 대부분 중소정당 후보였고, 당선자는 나오지 못했다. 이쯤 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에서 여성할당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지도 20년 가까이 되는데 왜 아직도 제자리인가.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법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다. 여성계의 줄기찬 노력으로 2000년 2월 제16

대 총선 직전 정당법 개정에서 국회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의무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다. 2002년 지방선거 전인 3월 광역의회 지역구 30% 여성할당 권고를 신설했고, 이에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함께 후보를 추천할 때 2인마다 여성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후보등록을 아예 받지 않도록 정당법을 개정했다.

정치개혁과 여성정치 참여 열망이 높아진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에는 국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을 50%로 높이고, 국회 지역구 30% 여성할당 권고를 신설했다. 이듬해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50% 여성할당과 더불어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는 '교호순번제'를 신설했다.

여성할당제가 힘을 못쓰는 이유

여성할당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강력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이전보다 7.1%p

상승한 13%로 늘어났다. 지방선거도 1998년 2%에 그쳤던 여성비율이 2010년 19.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2016년 제20대 총선의 여성비율은 17%에 머물며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여성당선 비율은 16.7%로 다시 하락했다.

여성할당제로 인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사실상 교착상태에 놓인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선거 전체의석 중 지역구 의석이 90%이고, 비례대표는 10%로 제한돼 있다. 정당들은 지역구 공천에서도 30% 여성할당제를 지켜야 하지만 이번에도 어겼다. 국회와 지방의회 지역구 모두 여성할당제가 노력사항으로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성할당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차별조항이 없다.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장 공천에서 여성할당제 30%를 제외하는 당헌을 두고 있기까지 하다.

지방의회의 경우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후보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여기에 군지역은 제외하고 있으며, 후보총수가 의원정수 50% 미만인 경우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여성후보 추천은 기초의회에 한정하는 결과를 낳고, 지방자치를 생활정치와 등치시킨은 담론과 결합돼 여성은 마을정치와 같은 구·시·군의원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으로 광역단위나 단체장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7회 지방선거 지역구 당선자 중 여성비율은 구·시·군 의원은 20.7%인데 비해 시·도의원은 13.3%, 구·시·군의 장은 3.5%에 불과하다. 시·도의 장은 앞서 살펴본 대로 '제로'다. 정치에도 '우리천장'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두께와 강도 역시 단단하다.


공천개혁으로 정치의 틀을 바꾸자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또 다른 '핑계'는 '준비

된 여성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참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가. 여성들에게 '노오오력'을 해서 당당하게 정계에 입성하라는 요구를 할 때는 지역구를 뜻하는데, 지역에서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조직과 인맥이 좌우하는 지방선거에서 동창회, 향우회 같은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에 기반한 남성네트워크를 여성이 자력으로 넘기란 불가능하다.

지역사회 정치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사와 돌봄을 전적으로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성에게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경쟁구조다. 정당 경선이나 공천과정 역시 인맥과 조직, 재정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네트워크는 대부분 기득권 남성들이 쥐고 있다. 당의 강력한 지원 없이 여성후보가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지금의 정당이나 한국 정치문화는 애초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치자금법은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고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조사의 따르면 이 돈은 대부분 당직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들은 여성정치인을 발굴, 교육하는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해 '준비된 여성정치인이 없다'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개헌을 통해 헌법으로 남녀동수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이 제안되는 이유다. 여성공천 할당제는 여성들에게 정치참여의 문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다. 지역구 공천의 여성할당제 의무화와 함께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맞춰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은 왜곡된 민주주의를 교정하는 법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투표는 끝났지만 변화는 지금부터

목포YWCA 대학·청년Y 'Spero Spera(스페로 스페라)' 회원들의 청년유권자운동 SNS캠페인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간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YWCA, YMCA 청년들이 청년유권자운동으로 SNS 릴레이캠페인을 펼쳤다. 대학 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청년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외침이 전국에서 뜨겁게 이어졌다. 16개 YWCA(가제,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목포, 서울, 수원, 안산, 여수, 울산, 인천, 전주, 진주, 창원, 청주) 청년회원 69명과 정유진 대학·청년위원장, 연합회·회원YWCA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YMCA 청년은 58명이 동참했다. 청년들은 “투표는 끝났지만 변화는 지금부터” 라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낼 것”을 다짐했다.





YWCA를 비롯한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5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2018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를 열었다. 남녀임금격차가 15년간 37%대에서 제자리인 한국의 여성노동 현실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이 20대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엄중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올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에 청년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김미진 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에 청년들을 어떻게 설득할까'를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신는다.

누가 '동일가치노동'을 왜곡하는가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여성인권을 넘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문제다. 여성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2014년부터 정책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청년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청년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YWCA를 포함한 주요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어떻게 청년을 설득할까' '활동비를 줘야 하나' '떡을 짓거나 선물을 줘야 할까' 청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토론회 참석 제안을 받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가 보도된 기사를 검색했다. 헌법 개정을 주제로 열린 TV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토지공개념 법안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자 야당의 한 여성의원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도 사회주의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차별을 없애고자 만든 조항인데, 어떻게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치부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인터넷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이 딱하니 있었다.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밝힌 파워블로거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분배하게 되었냐고 비판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언급한 글도 있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대한 마구잡이식 해석은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 똑같이 복사되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일례로 동아일보 2018년 3월 22일자 <"동일노동·동일임금, 헌법에 담을 가치인가" 뜨거운 논란> 기사를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기업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부풀린 의도가 엿보인다. 그밖에도 비슷한 맥락의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런데 주로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말장난 같은 논리다. 세상에 측정 가능한 노동가치 즉, 동일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동일노동'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문한다.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하자는 측이나 관련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시간당 시계 10개를 조립하는 숙련공'과 '시간당 시계 4개를 조립하는 초보'에게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시계를 조립한다는 행위 자체는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차별은 불법이고, 위험이다

왜 이렇게 무차별로 왜곡되고 잘못된 주장들이 확산될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서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마지막 저항이 아닐까. 늘 지적되는 문제는 '역차별'이다. 여성들의 취업 문턱이 높고,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알지만 자신들 삶이 너무 어려워니 누군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청년세대 상당수가 공정성을 문제로 반발했다. 사회 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 '평등', '역차별'의 문제로 여겼다. 실질적 평등인 '공평' '공정'보다 기회의 평등으로 단순화시킨 것이다.

청년세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쉬운 언어와 자주 사용하는 매체로 임금격차,

불평등문제를 알려야 한다. 책이나 기사보다 유튜브 영상이나 SNS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로 '공정(equity)'과 '평등(equality)'에 예민한 청년들에게 '공정함'이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설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②항은 '설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임금격차는 차별로 보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평등 조항의 연장선상으로 동일임금은 일종의 호헌, 준법투쟁으로 모든 기업에 부과된 책무다. 당연한 법안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동일임금의 날 제정과 헌법 개정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제 와서 입법화된 조항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어떤 의미로 슬픈 일이다. 사회적 약자의 노동희생으로 기업이 유지되고, 세계 경제 10위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말로 바꾸면 임금차별은 위험이다. 평등권 조항에 규정된 동일임금에 사회주의 프레임을 씌우며 반대하는 것은 위험이다. YWCA를 비롯한 단체들이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위헌소송을 펼쳐도 좋을 것이다. '미투운동'은 사회에 만연한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냈다. 피해자들의 용기로 가능했다. '페이미투운동'도 마찬가지다. 임금 불평등을 명확히 알고, 직장 내에서 목소리를 내야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인 여성들이 임금차별에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북돋아줄 수 있는 법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좌담회에 참석한 청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YWCA는 2017년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에서 받은 시민서명을 모아 신용현 의원에게 전달했다.



YWCA는 2014년부터 5월 넷째주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동일임금의 날' 제정추진 캠페인을 전국에서 해마다 벌였다. 올해는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슬로건을 내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페이미투(PayMeToo) 운동에 나섰다. 5월 21일(월)부터 6월 2일(토)까지 27개 회원YWCA(거제, 고양, 광주, 대구, 대전, 목포, 서울, 성남, 수원, 순천, 안양, 여수,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포항, 하남)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순천YWCA 6.2(토) 순천버드내공원



안양YWCA 5.18(금) 범계역



여수YWCA 5.30(수) 학동사거리



의정부YWCA 5.28(월) 의정부YWCA, 홈플러스 앞



익산YWCA 5.29(화) 익산YWCA, 원대병원



인천YWCA 5.26(토)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주YWCA 5.24(목)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천YWCA 5.24(목) 중앙로



진주YWCA 5.25(금) 진주교보생명 앞



거제YWCA 5.30(수) 옥포매립지일대



고양YWCA 5.24(목) 주엽역



광주YWCA 5.29(화) 광주YWCA 앞



진해YWCA 6.1(금) 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창원YWCA 6.1(금) 창원여성회관 대강당



천안YWCA 5.24(목) 천안YWCA 앞



대구YWCA 5.30(수) 대구YWCA 앞



대전YWCA 5.25(금) 대전역 서광장



목포YWCA 5.26(토) 평화광장



청주YWCA 5.24(목) 청주 성안길



춘천YWCA 5.24(목) 춘천 명동입구



충주YWCA 5.23(수) 충주롯데마트 광장



서울YWCA 5.31(목) 한국YWCA회관 앞



성남YWCA 5.25(금) 야탑역 광장



수원YWCA 5.24(목) 수원YWCA 앞



통영YWCA 5.31(목) 통영시외버스터미널



포항YWCA 5.30(수) 현산강로터리



하남YWCA 5.26(토) 하남시청 앞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5월 24일(목)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앞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현정

한겨레 기자

6년만에 재개된 공개변론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선 임신중절(낙태)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법 조항(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치는 '4대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지 6년 만이다.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정아무개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형법은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임신중절을 한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을 통해 임신 24주 이내에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공간·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 건강 등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본인·배우자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경제사정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

신중절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이러한 임신중절은 모두 불법이다.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임신중절 처벌은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임신 유지·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 초기 안전한 중절을 제한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임신에 대해 여성에게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인 고경심 인도의주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현재 난임부부 시술로 많이 쓰이는 시험관 수정에서도 ‘인공적인 유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외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할 때 다수의 배아를 착상해야 임신율이 올라가다 보니 3개 정도의 배아를 이식한 뒤 나중에 흡입을 해 선택 유산을 한다. 이런 사업에 정부가 수백억원을 지원하면서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는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

이 커 태아에게도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돼 임신중절 급증을 막으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쪽 참고인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신중절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많은 입법례가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나 임신 12주 이내 허용 등 임신중절 허용 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신중절’ 논란의 미래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태아의 생명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과 견줘 훨씬 완화된 임신중절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인구의 88%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산모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임신중절을 허용해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임신 12주 이내 중절에 대해서 사유 제한없이 허용, 12~24주 사이엔 태아가 기형이거나 산모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만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술 전 3일간 숙려기간을 두고, 의료진의 신념에 따라 환자를 맡지 않을 권리도 법안에 담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탈리아·벨기에·그리스·캐나다 등 20여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뿐 아니라 여성 본인 요청으로도 임신 10주~20주 등 일정한 기간 내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임신중절을 하려면 전문가 2인 승인 및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과 다르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시술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결론은 올해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강일원·김창중·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오는 9월 한꺼번에 퇴임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6년 전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위헌 정족수인 재판



낙태죄 폐지 반대운동을 벌여온 천주교는 3월 22일(목) 10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관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낙태죄’ 유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합헌을 주장한 재판관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뀌더라도 ‘임신중절 전면허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재판관들도 “전면허용에는 반대한다”거나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여성계는 출산과 임신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억압한다며 ‘낙태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민 약 23만명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조국 민정수석은 “태아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시술 양산 및 높은 시술비 부담, 해외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식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답했다. 정부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해 올해 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낸 보고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를 보면 2010년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16만 8738건, 임신중절률(만 15~44살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15.8%였다. 전체 임신중절건수 가운데 57.1%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매달 가구 소득별로 보면 100~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임신중절률이 가장 높았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등부항만 고철야적장에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쌓여 있다.

‘음이온’의 배신, 멀리 던져버려라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전문위원

‘방사능’ 제품이 특허까지 받았다니

라돈침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27개 모델 중 24개가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 1밀리시버트(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에 생산한 모델 2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다.

대진침대는 2006년부터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해왔다. 음이온을 방출하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를 뿌리고, ‘피로예방, 숙면유도, 집중력강화, 숲속 같은 맑은 침실 공기’를 만드는 ‘음이온 방출’ 인증기구로 판매했다. 정부는 이런 침대에 음이온 특허를 내주고, K마크를 부여하고,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기구 인증도 해줬다.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물질 우라늄과 토륨을 함유한 희토류 광물이다. 일반 광물에 비해 방사능 농도가 2천 배나 높다. 우라늄과 토륨은 방사성 붕괴과정에서 라

돈을 배출한다. 우라늄과 토륨은 반감기가 각각 7억년, 141억년이기 때문에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에 계속 피폭된다.

라돈은 가스형태의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폐암의 3~14%가 라돈 피폭에 의한 것으로 보고, 흡연에 이은 두 번째 폐암원인 물질로 지정했다. 미국 환경청은 매년 미국 폐암 사망자의 10%(21,000명)가 라돈과 라돈자손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환경정책평가원이 라돈에 의한 폐암발생 위험도를 연구했는데 전체 폐암환자 중 라돈노출로 인한 경우가 각각 12%, 12.9%로 추정됐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은 대진침대뿐만 아니라 생활 속 전반에 넘쳐나고 있다. 생리대를 비롯해 속옷, 화장품, 정수기 필터, 소금, 베개, 온열매트, 라텍스, 목걸이, 팔찌 등 다양하다. 2014년 원자력안전기

술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음이온 제품으로 홍보하는 49개를 조사한 결과 40개 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일부 목걸이와 모자, 마스크, 토르말린 베개에서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화장품과 찜질매트에 서도 방사능이 나왔다. 방사능 농도가 높게 나온 제품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주로 토르말린 함유 음이온 제품으로 표기됐다. 토르말린은 모나자이트보다 방사능 농도는 낮지만 천연방사성 물질이다. 그런데 방사성 물질이란 정보가 없이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홍보되는 물질도 토르말린이다. 유명 의료기기 회사는 토르말린과 게르마늄 등을 섞어서 만든 매트와 침대류를 통승완화, 혈액순환 등에 좋다고 판매하고 있다. 토르말린이 함유된 라텍스 침대도 특허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토르말린 찜질방과 토르말린 사우나 등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돼 생활 속으로 침투되고 있다.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다

한국원적외선협회는 음이온 제품의 음이온 방출원리를 방사선을 방사시키는 희토류광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광석법’, 단전기를 사용하여 직접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전기발생식’, 폭포가 암석에 마찰되어 미세한 물 입자로 부서지는 물리적인 마찰을 통해 미세한 음이온 입자를 생성하는 ‘레너드식’ 등으로 설명한다. 음이온 제품 회사들은 대부분 ‘레너드식’으로 광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천연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음이온을 방출하고 있다.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음이온 측정이 의뢰된 제품의 90%가 천연광물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됐다. 원자력안전재단 조사에서 일반원료와 음이온원료의 방사선량을 측정결과, 음이온과 방사선량률이 비례했다.


음이온 수치가 높을수록 방사선이 많이 배출된 것이다. 음이온 제품 회사들은 음이온 수치를 높이기 위해 방사능 농도가 높은 모나자이트와 지르콘 같은 천연핵

종을 사용하고,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토르말린 함유 음이온 제품 등으로 홍보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음이온 제품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표기한 업체는 찾아볼 수 없다. 토르말린으로 표기하거나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을 섞어서 사용하고 표시하지 않는 제품이 많을 수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이온은 건강에 이롭기는커녕 해를 끼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수년간 몸에 착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음이온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 던져 버려라’고 권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재단도 내과학회나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 의학연구기관에 음이온의 건강효과에 대한 논문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음이온 제품이 대기 중에 이온을 생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알파, 베타, 감마선 같은 나쁜 종류의 이온화 방사선을 생성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원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서 음이온이 방출되고 열이 나온다고 홍보하면 그 속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 결국 음이온은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 에너지다.

이런 제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건강에 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대진침대를 사용해온 사람들은 폐질환, 호흡기질환, 갑상선암, 폐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모나자이트가 많이 사용된 매트리스를 계속 사용한 사람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방사선에 안전한 피폭선량은 없다. 미국 환경청의 식수 안전기준은 ‘이 정도라면 안전하다는 방사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기준으로 제시하는 연간 1밀리시버트 피폭은 1만명당 1명꼴로 암을 일으키는 위험을 포함한 관리기준이지 의학적인 안전기준이 아니다. 생활제품에서 추가되는 방사선 피폭은 피할 수 있다. 의심되는 음이온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급변하는 시대 다양한 현안을 학습하기 위해 5월부터 시작한 YWCA 지속가능포럼 두 번째 모임이 6월 7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장미란 평화·통일위원장(사진 왼쪽)이 사회를 맡고, 박명규 서울대 교수(오른쪽)가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서형원

청주YWCA 일하고참여하는청년의집 회원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중부지역 대표

‘역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는 한반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안팎의 흐름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예측이 불분명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기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격없이 인사를 나누고,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역사적 대전환으로 이어질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혼치 않는 대기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 북한, 미국의 3자 주체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을 추가하면 4자가 된다. 역사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을 제외하고 4자 국가의 의견이 일치한 적이 없다. 그런데 3자 국가의 정치적 목표가 모처럼 한 방향으로 합류하고 있다. 의제도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전문가 그룹이나 실무단위 논의과정 없이 최고지도자들의 과감한 결단에 의해 탑다운식으로 추진되는 것도 특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 문재인 대통령의 진지함이 특유의 시너지를 얻은 결과다.

이런 조건은 부정적 반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남북미간 신뢰수준이 아직 낮은 상태에서 북미간 이

해충들이 격화되고 한국의 중개역할이 한계에 부딪치면 더 이상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대전환의 기회를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포괄적 해결은 2018년 대전환 드라마의 핵심 주제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가로막은 주원인은 남북한 사이, 북미 사이의 깊은 불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노선전환을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남의 기회가 생겼다.

북미정상회담이 난관에 부딪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따라오는 문제는 적지 않다. 한국은 북미간 중개자 역할과 남북관계에서 당사자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미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한국의 미래와 한반도 장래에 결정적인 사안이어서 한국 정부가 제3자 위치에 만족할 수 없다. 북미간 갈등이 심해질 경우 중개자 역할은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살 수도 있다. 북미간 중개자, 신뢰조성자의 역할이 잘 가동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에 2개 국가가 인정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빅딜형태로 이뤄져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련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전환이다. 하지만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는 정전체제에 근거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잠정적인 남북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평화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체제’다. 분단체제와 구별되지만, 통일상태와도 질적으로 다른, 그렇다고 잠정적인 중간상태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독자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세계 160여 개국과 수

교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가다. 미국, 일본과는 수교하지 못한 상태로 핵무력 노선을 고집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과 제재상태에 놓여 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성공적인 편입과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만약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인정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한민국 중심의 기존 대북정책과 헌법은 새로운 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정의해온 틀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며, 동일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관계다. ‘잠정적 특수관계’론은 민족관계, 적대관계, 준외교관계가 혼재된 분단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평화상태가 도래한다면 남북관계는 각각 별개의 주권체인 분단국가의 관계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반도를 분단과 통일의 이분법으로 생각해왔다. 통일의 제도, 평화의 제도, 분단의 제도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으로 남북한 평화체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통일은 다음 세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전반, 다양한 민간부문에서 교류와 신뢰가 확대되고 공동체 통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정치군사적 차원의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구축, 긴장완화 조치가 평화의 첫 조건이 될 것이라면 시장을 통한 물류와 자원, 경제소통과 협력이 실질적 조건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의 동질화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헌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북한도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인권과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쇼트트랙은 선수들이 뒤엉켜 진행되는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고도의 감각, 판단력, 상호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는 고난도 전략게임이다. 남북관계에서도 국가, 기업, 시민사회들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쇼트트랙처럼 비핵화, 평화체제, 분단국 관계, 민간교류가 4명의 주자처럼 팀워크를 이룰 때 한반도의 평화는 탄탄해질 것이다. 



북부지역위원회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이 5월 28일(월) 서울YWCA에서 열렸다.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가 '기독교성주의 관점에서 본 YWCA 성평등운동'을 강의하고 있다.

노인자

인천YWCA 이사(북부지역위원회)

양성평등에 익숙한 우리가 성평등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든 의문은 '왜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었을까'였다. 여기저기서 용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에 대한 나의 공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인천YWCA 이사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맡은 책임 때문에 다시 공부하면서 놓친 부분도 알게 되었다. 진지하게 듣는 이사님들과 실무자들 모습 속에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느꼈다. 전달교육에서 내가 경험했던 동성애자 상담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성소수자들의 아픔이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 동성애는 '죄'라고 단정 짓는 이분법을 가진 우리에게 닫혀 있는 마음을 열게 하고 성경적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은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숙진 교수의 강의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50여 가지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일부 기독교계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소아성애자도 인정해야 하느냐? 소아성애나 수간 등은 비정상적인 성욕이기에 성소수자 범주에서 벗어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성적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와 관계하는 것은 폭력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라고 한 레오나르드 스위들러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예수는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을 인간으로 존중했는데 복음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가. 이중적인 사고와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젠더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성찰하는 능력을 키우고, 약자에게 강요되는 부정의한 관행을 거부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성비균형조차 요원하니 더 열악하고 그늘진 곳에서는 어떠한가.

김홍미리 교수는 여성혐오(misogyny)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존재를 지우며,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가로막으며, 묻지 않고 진단하며, 손쉽게 사용하며, 사유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부터 폭력의 관찰자로 살지 않고 '어떻게' '나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겠다.

YWCA 성평등운동을 지역YWCA에서 꾸준히 전개할 수 있도록 연합회 지원이 계속된다면 회원으로서 함께 고민하며 정의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리라. 페미니스트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부지역위원회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이 6월 1일(금) 광주YWCA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조별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인영희

남원YWCA 회장(서부지역위원회)


한국사회와 교회가 여성혐오, 여성차별이 내재된 낙후한 공간에서 가부장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통해 기독교성주의의 필요성, 기독교여성주의의 역사, 성서 속 여성들의 모습, 교회 안팎의 여성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교인들의 60~70%를 넘는 순종적인 여성교인이야말로 교회 성장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지만, 교회 공동체 의사결정과 구조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성의 배제는 당연시되고 있다. 여성의 권위와 신앙을 인정한다면 교회내 여성혐오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성혐오는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는 다른 모습이다.

"여자들이 무시해서 그랬다"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에서 한국남성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남자가 무시한 것은 참으면서 여자가 무시한 것은 살인동기가 되는 현실이다. 교회의 오랜 가르침과 성서해석은 여성을 열등하고 유혹하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여성혐오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왔다. 수정단계부터 잘못 결합된 것이 '여성'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인식은 아퀴나스에 이르러 교리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교리를 공과시간에 가르치지 않는 동등한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교회 문화가 여성혐오로 이어지는 것

은 자명하다.

가부장적 교회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적 사상에 젖어 여성은 열등한 존재이거나 유혹하는 존재라는 여성혐오를 내면화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여성을 혐오하는 된장녀, 김치녀, 김여사 등의 용어가 일상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군가산점 논쟁 후 '여성혐오는 정당하다'는 궤변까지 거리낌 없이 주장되고 있다. 여성혐오 언어는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와 상실감의 표출이기도 하다. 생계부양자로서 지위상실의 좌절을 열등하고 위험하다고 인식하던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성, 사랑, 결혼 생활이 박탈된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가. 높은 이혼율과 저출산율 등 가족위기 징후는 가족판타지를 통해서 극복될 수 없다. 우리 시대 가부장주의를 넘어 서기 위해서는 인식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차원의 대안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할분업이 생물학적 운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의 분리, 즉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은 부모 모두 나아가 사회공동의 책임이 된다면 성별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성평등은 YWCA가 끊임없이 펼쳐나갈 몫이라 생각한다.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녀 모두를 위한 길이고 미래 세대에 남겨줄 유산이다. 



등불야간학교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가 이뤄지던 1960~1970년대를 생각하면 가발, 의류 등 공장에서 일하던 이른바 '여공'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린 여공들은 교육받을 나이에 가족 생계를 위해 힘겹게 일했다. 당시 조치원YWCA는 여성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1974년 공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등불야간학교'를 만들었다. 지금 세종YWCA 등불야간학교로 이어져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한글과 영어교육을 열고 있다.

김영옥

세종YWCA 간사

2만원의 빛으로 시작한 '배움의 등불'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교육권은 인간의 기본권리로 자리를 잡았다. 등불야간학교가 생겨난 1974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던 시절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는 많지 않았다.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은 섬유, 봉제 등 경공업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낮은 처우를 받았다. 특히 어린 나이의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수많은 소녀들이 공장에서 젊음을 보내고 있던 시기 YWC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세종YWCA 옛 이름인 조치원YWCA의 유분이 총무는 직업여성 야간중학교를 세우기 위해 지역사회의 뜻을 모았다.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노력의 결실로 등불야간학교가 만들어졌다.



1975년 등불야간학교 수업 모습

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은 높았다. 직업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니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그들을 지도할 교사와 예산 확보가 문제였다. 교재구입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결국 무작정 서점에서 외상으로 2만원의 교재를 구입했다. 간절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걸까. 경찰 보안과에서 불우청소년 학원교재비로 편성한 예산을 받게 되어 2만원의 빛을 갚았다. 교사는 염정훈 조치원여고 교장의 협조로 조치원여중·고 교사진 6명을 구했다.

1974년 5월 1일 입학생 37명과 함께 개교식을 열었다. 국어, 수학, 영어, 국사, 한문, 가정 등 6과목을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씩 가르쳤다. 어려운 운영과 재정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1979년 검정고시 6명의 합격생을 배출했고, 19년 동안 6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등불야학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1992년부터 학생 수가 줄고 새로운 청소년활동이 만들어지면서 등불야간학교는 최윤목 대표와 세종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독립 운영되었다. 그러다 세종YWCA가 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등불야간학교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명의 교사와 함께 한글반, 영어기초반을 무료로 열고 있다.

배움의 어둠을 밝히다

등불야간학교에는 평균 연령 60세 어르신 8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생 절반 이상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분들이다. 출석률 90%를 유지하며 그야말로 '열공'하는 모습에 기분 좋은 자극을 받곤 한다. 잘한다고 칭찬해드리면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 옛날 야간등불학교 소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현재 두 분의 학생은 8년째 등불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정돈된 글씨로 일기와 편지글을 아주 잘 쓰신다. 서화순 학생은 성인문해 시화전 작품에 품나는 작품을 완성해 출품하기도 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물으니 "남편에게 받침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고 싶다"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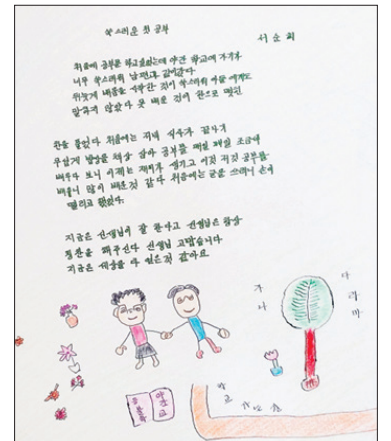
한분 한분의 삶의 애환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많다. 처음 등불학교에 올 때 누가 볼까봐 몰래 오고가던 일, 나만 배우지 못한 것 같은 통한, 무시당해서 흘렸던 서러운 눈물, 부모를 원망했던 시간 등이다. 그 시절 삶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고 모두 당신들 탓으로 돌리

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절로 숙연해지곤 한다.

한글교재인 '소망의 나무' 2단계를 마친 교육생 어르신은 "이제는 간판이 보이고, 웬만한 글씨는 읽을 수 있어서 좋아. 더 열심히 해야 해!" 라고 다짐하셨다. 다른 한 분은 은행 가서 직접 이름을 써서 남의 도움 없이 일을 봤다는 게 너무 좋라며 자식이나 손자 앞에서 창피한 것이 덜해졌다고 하신다.

어르신들은 서로서로 경쟁심도 은근히 보이며 열심히 공부한다. 그분들이 나눠주는 삶의 이야기, 한글 공부를 시작한 이유, 지금의 심정, 잘해야겠다는 다짐은 삶의 깊은 의미로 전달되면서 우리를 더 배우게 한다. 등불야간학교 이름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다하자'라는 뜻이 있다. 이에 걸맞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일주일 내내 등불이 꺼지지 않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해야겠다.

앞으로 등불야간학교에 주간반 한 클래스가 더 만들어지고, 한글반과 영어기초반뿐 아니라 수학기초반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르신 학생들과 즐거운 나들이도 좋은 곳으로 떠나고, 감동 있는 영화도 보고, 따뜻한 밥도 같이 먹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열정을 가진 가슴에 더 뜨거운 열정을 드리고, 등불야간학교 교훈인 사랑·믿음·성실·명량의 전통을 지켜 즐거운 학교생활을 경험하게끔 좋은 계획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지금 배움의 행복을 끝까지 간직하시길 바라며 등불야간학교의 어르신들을 응원한다. 



시화전에 참가한 서화순 교육생의 작품 '속스러운 첫 공부'



고양YWCA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참가자들이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배우고 있다.

정선영

고양YWCA 과장

경력단절 여성,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보미

최근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가 활발해졌고 다원화된 취업형태에 따른 임시·일용직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보육시설은 정규시간 이외 보육에는 매우 취약하다.

가족 돌봄기능의 약화는 공적 돌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은 취업부모들의 육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영유아의 건강상태, 질병 등에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지 못한다. 특히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양육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 아이돌보미 지원법을 제정해 가정내 개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면서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

을 육아 전담인력으로 양성해 고용증진 기회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아이돌보미를 선발, 교육해 각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진행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의정부·남양주·고양YWCA 3개 권역이 맡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YWCA는 3월 26일(월)부터 4월 12일(목)까지 80시간 동안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다양한 이용가정의 요구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소양 교육과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 서비스 교육이 펼쳐졌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이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성인지 교육, 아동건강과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이돌보미 활동의 실제에 대한 교육과 영아기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아기 아이돌보미 서비스, 학령기



교육생들이 아동 놀이도구 만들기 수업을 받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첫날 "나도 자녀를 키웠지만 어떻게 돌볼 지 막막하다"고 말하던 교육생들이 하루이틀 교육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전문가로서 모습과 다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강사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열정으로 참여했다. 하루 7시간 교육이라는 강행군에도 큰 집중력을 보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교육생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꼭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선발되니 꿈만 같았다"며 교육기간 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이돌보미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지금의 사회인식과 구조에서 다시 활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아직까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식



고양YWCA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서 27명이 수료했다.

은 낮다. 아이돌보미가 전문 직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생의 자존감향상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보미 수요도 증가하는데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도 지원됐으면 한다.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기초양성 과정 80시간을 마치면 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1년에 한번 16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다시 활동할 수 있다. 고양YWCA는 고양건강가정지원센터와 파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300여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보수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3~4월 고양YWCA에서 진행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에서 27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다. 앞으로 각 가정으로 나가서 활동할 27명의 아이돌보미 한분 한분을 응원하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따뜻한 지원군이 되길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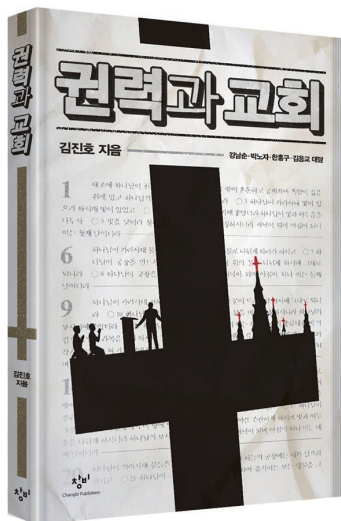
“내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겠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참여자 소감

-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유아기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해준 교육이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양성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나간다면 교육받은 내용을 다양하게 활용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돌보미가 되고 싶습니다.
- 교육의 중요성을 느껴봅니다. 저로 인해 한 가정이라도 행복했으면 합니다.
- 아이를 키우면서 놓친 부분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강의시간마다 기대되는 교육이었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 좀더 젊은 부모들이 이 과정을 교육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육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 걱정도 많이 되지만 교육을 듣고 아이들을 잘 키워 나가도록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아이돌보미의 전문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내 아이를 다시 키운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 번째 ‘권력’이 되었는가 〈권력과 교회〉

양희승
청어람ARMC 대표



권력과 교회
김진호 / 창비 / 16,000원

교회의 가장 아픈 곳을 얘기하다

<권력과 교회>는 창비출판사가 한국사회 주요 ‘권력’의 구조를 파고 들어가는 시리즈 출판의 세 번째 책이다. <권력과 검찰>, <권력과 언론>에 이어 ‘교회’가 꼽혔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다. ‘종교’도 아니고, 사실상 ‘개신교’가 지목당한 셈이다. 이 책은 저자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원 연구실장)가 4명의 학자들과 대담하며 각 주제를 드러내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1장에서는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와 한국 개신교의 보수화와 권력구조를 두고 토론하는데, 강남순 교수가 ‘교회 세습’ 문제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성직주의와 남성중심적 체제를 중심에 놓고 비판을 가하는 반면 김진호 목사는 문제의 핵심이 목회자보다는 교회 내 엘리트 그룹이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아서 관심을 끈다.

제2장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와는 개신교가 한국사회에서 최강의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과 그 기원을 두고 논의했다. 대형교회가 정치, 경제, 문화 분야 인맥 네트워크의 구심점이자 결혼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상황도 흥미롭게 묘사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사회조건과 그 함의를 추적한다.

제3장은 개신교의 반지성주의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발원하는지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토론한다. 여기서는 해방 전 서북기독교의 성격 규정, 해방 후 반공주의가 우파의 세상을 열어가는데 기여한 방식,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형교회의 등장과 그 배경으로 작동한 기복주의를 분석하면서 이런 사회역사적 과정이 어떻게 반지성주의적 특

색을 갖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나간다.

제4장에 이르면 앞으로 대안으로 모색할 방향성을 두고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와 토론했다. 성장주의와 성직주의의 폐해에 반하는 교회들의 실천 사례들이 여럿 소개되고, ‘작은교회 운동’ 등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판적 성찰을 넘은 ‘질문’


이 책은 기존의 개신교 비판서에 비해 진일보한 지점이 있다. 첫째, 자칫 사건사고의 나열에 그치기 쉬운 논의를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관점으로 연구와 발언을 해 온 4명의 학자들과 입체적으로 조명한 덕분에 각각의 주제가 근거하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풍성하게 분석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책 전체의 논지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김진호 목사가 적절히 개입하며 일관된 해석의 틀을 형성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 그 작업의 성취도를 높여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두고 창비출판사가 주관한 북토크와 작은 세미나 현장에서 저자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어서 궁금한 지점을 질문해볼 수 있었다. 덕분에 세부적인 자료나 해석을 두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형교회의 리더십 구조에 대한 비판 지점, 서북기독교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 반지성주의와 신비주의가 결합하는 역사적 맥락 등이 흥미로웠다.

둘째, 그러나 처음 접하는 정보와 새로운 해석은 좀 더 확장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한국 개신교의 정치사회적 보수성을 설명할 때 해방 전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던 서북지방 개신교인들이 해방 후 공산주의 박해를 받아 대거 남하해 서북청년단 등을 구성하면서 제주 4.3사건 등 민간인 학살과 우익테러를 저지르고 반공보수의 행동대 역할로 남한 교회와 남한 사회의 보수화를 이끌었다는 내러티브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칫 지나치게 단순화된 형태로 유통될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복합적인 맥락이 증발될 우려가 있다.

서북기독교가 근본주의 일색이었는데, 서북기독교의 정치적 선택이 서북청년단으로만 집약되는가, 현재 개신교의 보수성을 여전히 서북기독교 영향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인가 등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서북기독교에서 주도권을 가진 중추세력은 도산 안창호를 필두로 민족교육 등에 나섰던 개신교 지식인이었고(오산, 송실 등이 서북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승만 세력과는 상당히 적대적이었기에 서북청년단 등도 해방정국에서 한시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활동에 이용되고 내쳐진 측면이 있다. 서북기독교의 주요한 지식인들은 잡지 <사상계>의 주요 인맥으로 결집되면서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재야의 개혁세력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행보를 보였다.

서북기독교의 대표 인사였던 한경직 목사 역시 이승만 정권과는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던 바 당시 역할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교야합의 그림이 그려지는 단순구도는 아니었다. 남한 개신교가 전반적으로 반공보수의 기수이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해독제를 제공하는데 기여한 이들도 개신교 내부였다는 점에서 개신교가 한국의 사회권력으로 자리잡는 과정이 갖는 양가성이 동시에 음미될 필요가 있다.

<권력과 교회>는 개신교와 권력의 관계, 혹은 권력화되는 과정을 일정하게 해명해준다. 그것은 비판적인 성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찰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것이다. 개신교가 한국사회에서 권력화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권력화의 다면적 성격을 이해하고, 해체와 폐기에 처해야 할 부분을 유념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사회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적절히 활용될 측면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나는 이 책이 단순한 비판서나 고발서가 아니라, 꽤 진중한 질문을 바닥에 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질문은 개신교 안팎의 다양한 독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토론의 물꼬를 여기서부터 터보도록 하자.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탈핵생명위원회의 주관으로 6월 1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탈핵생명위원회가 특송 ‘날 만드심이라’를 불렀고, 박보경 장신대 교수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YWCA 지속가능포럼 ‘한반도 평화’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번째 YWCA 지속가능포럼이 6월 7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장미란 평화·통일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명규 서울대 교수가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세 번째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과 교육’을 주제로 9월 6일(목)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26~27쪽 참조)

서부, 동부, 중부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이 서부, 동부, 중부지역위원회에서 열렸다. 6월 1일(금) 광주YWCA에서 진행된 서

부지역위원회 교육에는 74명, 6월 20일(수) 대구YWCA에서 열린 동부지역위원회 교육에는 84명, 6월 21일(목) 대전YWCA에서 진행된 중부지역위원회 교육에는 53명이 참석했다. 이숙진 이대 교수가 ‘기독교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YWCA 성평등운동’을 공통으로 강의했다. 서부와 동부지역위원회에서는 김홍미리 경기대 강사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중부지역위원회에서는 마정윤 아주대 강사가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을 강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28~29쪽 참조)

연합회 · 서울YWCA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연합회와 서울YWCA는 2018년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5월 31일(목) 서울 명동에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페이미투(#PayMeToo)’를 주제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들에게 남녀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5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임금차별은 불법이다”를 주제로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를 열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배정미 연합회 중점운동국장이 청년여성의 임금차별,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중장년여성의 저고용 문제를 주제로 대담을 펼쳤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집중기도운동

평화의 세상을 염원하는 기도운동을 지속해온 YWCA는 올해도 6월 1일(금)부터 북미정상회담 개최일인 12일(화)까지 전국 회원들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오 집중기도운동을 펼쳤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에베소서 5장 8-10절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했다.

제3차 길위의 평화포럼



제3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6월 21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WCA 회원, 청년회원, 탈북민으로 구성된 평화포럼단과 연합회 자원·실무활동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한국 사람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7월 19일(목) 열리는 4차 길위의 평화포럼에서는 전우택 연세대 교수가 ‘평화협정과 사람들 : 사회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강의한다.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지원 모니터링



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는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지원 모니터링을 위해 6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중국 단둥을 방문했다. 1997년부터 북한어린이돕기를 지속해온

YWCA는 2017년 8월 이후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된 분유 지원을 올해 4월 재개했다. 현재는 격월로 해외동포 단체를 통해 중국과 북한의 육로로 평안북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진용 평화·통일위원회 위원과 북부지역위원장인 조종남 서울YWCA 회장, 연합회 실무자가 모니터링에 참여했다.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



연합회는 평화·통일 감수성을 확산하고,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을 알리기 위해 6월 18일(월) 서울 명동 한국YWCA회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평화·통일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캠페인에서 YWCA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북한어린이돕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긴급좌담회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사건으로 라돈침대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는 5월 30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긴급 좌담회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을 열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의 발제로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민석 대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24~25쪽 참조)

라돈침대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6월 5일(화)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규탄하고, 라돈침대를 비롯한 생활방사능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생활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6월 20일(수) 국회의 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으나 안일한 인식만 드러냈다. 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실에 (가칭) '라돈침대사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북유럽 해외연수

YWCA 복지사업단은 6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7박 9일간 한국YWCA 어린이집 원장 북유럽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11개 회원YWCA(거제, 고양, 광주, 마산, 목포, 부



산, 세종, 인천, 전주, 창원, 청주) 어린이집 원장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생태숲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핀란드YWCA를 방문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제7차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6월 18일(월) 국회 앞에서 1년째 계류 중인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은 50년 넘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거듭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 이주 가사노동자를 불법고용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3대 걸림돌로 선정하고 이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제3차 실행위원 영성훈련

제3차 연합회 실행위원 영성훈련이 6월 8일(금) 열렸다. 전배자 신임 협력위원, 김말숙·박영순·백혜진 실행위원, 한영수 회장, 원영희 제1부회장, 이종임 제2부회장 등 9명이 참석해 YWCA 목적을 이해하고 자원활동가의 사명을 되새겼다.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YWCA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워크숍이 6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와 계룡스파텔에서 열렸다. 연합회 사무총장, 지역대표 사무총장, 지역위원회와 지역아카데미 담당 사무총장, 광역시 소재 회원YWCA 사무총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지역 여성운동을 주제로 YWCA 정책을 토론했고 회원YWCA 현안과 하반기 활동, 제2차 사무총장협의회 준비를 논의했다.

청년유권자행동 SNS 릴레이 캠페인



YWCA와 YMCA 청년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1일(금)부터 13일(수)까지 청년유권자행동 SNS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청년들은 회원YWCA와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의 요구를 담은 '청년유권자선언'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로 공유했다. 청년들은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 청년인권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16~17쪽 참조)

1922장학금 모금바자회



한국YWCA를 창립한 1922년을 기념하며 1,922명의 후원자가 YWCA 운동의 주체인 청소년과 청년을 1인당 1만원씩 후원하는 1922장학금 모금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금바자회가 열렸다. 연합회 장학위원회는 6월 15일(금) 회관 앞에서 1922장학금 모금을 위한 작은 바자회를 열어 실행위원 기증품을 포함해 인건 의류와 침구, EM 생활용품 등을 판매했다.

'전세금 매칭펀딩' 1호 파주YWCA 선정



첫 번째 회원YWCA 재정자립 지원대상에 파주YWCA가 선정됐다. 연합회는 회원YWCA 재정안정화를 위해 주차장 부지 임대수익금 중 1억원을 2018년 회원YWCA 재정자립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회원YWCA는 연합회와 각각 3천만원까지 부담하는 전세금 매칭펀딩, 200만원 미만 사무총장 급여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파주YWCA 전세금 매칭펀딩 지원금은 6월 7일(목) 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전달됐다.

여성평화네트워크 발족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6월 18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여성평화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념, 지역, 영역을 넘어 남북여성 교류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범여성계 조직으로 출발한 여성평화네트워크는 민간차원의 상시 협의기구를 마련해 문화·사회·교육 등 다양한 남북여성 교류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여성평화심포지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여성의 힘으로'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YWCA, 여성의정 감사패 받다

한국여성의정은 5월 25일(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

연합회 소식



린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여성정치 70년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준 공로로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여성신문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2013년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넘어 창립한 한국여성의정은 여성정치인 역량강화, 예비 여성정치인 육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영수 회장, 6·15남측위 대표단으로 방북
한영수 연합회 회장이 6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



지 평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측위원회 대표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간차원의 방북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15남측위원회 민간대표단 방북도 9년 만이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방북에는 여성, 종교, 노동, 농민, 청년 등 분야에서 15명이 참석했다. 여성대표로는 한영수 회장이 유일하다.

지정기부	신희운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북한YWCA 재건기금 500만원
인사 복지	홍수진 간사 정책기획국 협력사업팀(2018.6. 1) 김수연 간사 정책기획국 Y아카데미(2018.6.13)

바로잡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호 17쪽 '경남YWCA'는 '진해YWCA'로 바로잡습니다. 5월호 2쪽 목차 쪽수와 51쪽 제주YWCA 사진이 잘못 실렸기에 사과드립니다.
---------------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8. 5. 1~5.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순복, 권 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임근, 김정민,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정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민숙, 심은옥,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원, 이주영, 이찬형, 이천진, 이현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빈, 최지영, 최형선, 허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835,000
개인 기부	최혜실, 이종임, 유예은, 이진용, 오경선	124,430
회원YWCA	동해YWCA	1,000,0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33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NH농협은행(명동지점), 레오나다스, 르뱅(명동성당점), 명성약국, 에베레젤라도(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231,200
합계		3,520,63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8. 5. 1~5.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후원 명단	강릉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대전YWCA, 여수YWCA, 인천YWCA,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1,630,000
개인	고창완, 김수진, 김말숙, 김예향, 김지윤, 박미선, 배정미, 신순영, 안정희, 양혜경, 양혜진, 오경혜, 이혜련, 장수빈, 조은영, 최태순 ※ 2017년 약정자 중 2018년 1-5월분 완납자 김미순, 강선임, 고영자, 김금숙, 김영숙, 박영숙, 박영순, 박은실, 박현숙, 배정미, 백혜진, 서희전, 송록희, 안경숙, 오은경, 원영희, 윤정희, 이승희, 이애라, 이유림, 이진용, 정유진, 조수진, 지옥정, 차혜영, 최종옥, 탁순희, 한미미, 한영수, 홍인숙, 황인원	420,000
합계		2,050,000

회원YWCA 소식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회장
이사·위원 '여성역사기행'



고양YWCA 29명의 이사, 위원, 활동가들은 5월 18일(금) 이사·위원 연구모임으로 여성역사기행을 다녀왔다. 주류 역사에서 조명되지 않은 단종의 비 정순왕후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서울 낙산 정업원구기와 비우당, 조선 최초의 여성시단을 이끈 문인이자 전국을 누빈 여성 여행가 김금원이 찾았던 북악산 백사실계곡을 탐방했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역사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광명YWCA 임혜정 간사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는 4월 26일(목)부터 5월 24일(목)까지 여성의 안전과 정체성 탐색을 위한 젠더전문가 양성교육을 5차례 진행했다. 2018 광명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성폭력 예방에 관심 있거나 지역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리더를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단체급식 종사원 교육

남양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지역여성 20명을 선발



해 단체급식 종사원 교육을 진행했다. YWCA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건강과 안전관리, 영양관리, 자기개발과 스트레스 해소법에 이어 조리실습, 급식시설 방문실습 등 모두 50시간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여성 정치참여과정 모니터링



부천YWCA는 경기여성연대와 함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을 모니터링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활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31일(목)부터 12일(화)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모니터링단 8명은 5월 29일(화) 여성정책과 여성의 정치참여, 모니터링방법,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았다.

성남YWCA 김경진 간사

Y-T인 '평화통일의 길을 미리 걷다'



회원YWCA 소식

성남YWCA Y-틴 25명은 5월 26일(토) 남북분단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평화통일 관문이자 남북대화 현장인 파주 임진각과 도라산역 일대를 둘러봤다. 임진각 경의선 철교 스카이워크에서 교각에 남아있는 한국전쟁 당시 총탄자국을 보며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고, 제3땅굴에서 냉전시대 긴장감을 체험했다. 국제여성평화환경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이날 청소년들은 도라산역에서 평화행 철도를 바라보며 하루빨리 남북을 왕래하길 기원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독일로 떠난 환경평화연수



수원YWCA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6월 1일(금)부터 8일(금)까지 이사, 실무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에서 환경평화연수를 진행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돌아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했고,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를 찾아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YWCA 역할을 고민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통일걷기대회 '통일' 포토존 운영



안산YWCA는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가 6월 9일(토) 화랑유원지 소공원장에서 연 제11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 포토존을 운영했다. 개인, 가족, 단체들은 다양한 통일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다. 북쪽말 맞추기, 통일바람개비 만들기, 경의선 기차여행 등 체험마당을 마친 1,000여 명의 행진으로 전체행사를 마무리했다.

안양YWCA

홍미영 간사

안양시장 후보자 정책협약식



안양YWCA는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시협동조합협의회, 생활정치연구회와 함께 5월 24일(목) 강당에서 안양시장 후보자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 자유한국당 이필운 후보, 바른정당 백종주 후보가 참석했다. 안양YWCA는 한국YWCA 의제로 탈핵에너지전환과 성평등을, 안양YWCA 의제로 통일·청년·주민자치 정책을 제안했다.

의정부YWCA

윤수지 간사

Y-틴 '역사 소·화·행'



의정부YWCA Y-틴은 5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 캠페인을 벌이는 '역사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역사 소·화·행)을 진행한다. 6월 9일(토)에는 '위안부와 남북분단'이라는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의정부역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녀왔다. 소녀상을 닦고 주변을 청소한 청소년들은 할머니들에게 전하는 글을 낭독하면서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이사·위원 '성평등' 워크숍



강릉YWCA는 5월 15일(화) 비전홀에서 '성평등'을 주제로 상반기 이사·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여는 예배 후 황경희 서울YWCA 간사가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TV프로그램과 광고에 나타난 성차별 사례를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성차별 광고로 지적된 이케아가구 광고를 보고 토론하면서 성평등 인식을 높였다.

동해YWCA

정상금 간사

여성친화도시 '로컬푸드' 개강



동해YWCA는 동해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으로 '로컬푸드 순환경제를 만들다'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5월 11일(금)부터 6월까지 동해YWCA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GMO(유전자변형식품) 대안으로 로컬푸드를 이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바른 먹거리 활동을 찾고, 이를 통해 지역 순환경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북멘토링' 독후감 시상

서울YWCA는 5월 10일(목) 마루홀에서 '북멘토링 프로젝트'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24명 청소년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미평



여자학교(청주소녀원),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VIP 스쿨 청소년들과 북멘토 자원봉사자, 하나금융그룹재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2012년 시작된 북멘토링 프로젝트는 멘토와 소외 청소년이 일대일 결연을 맺어 멘토가 청소년에게 책과 손편지를 보내는 정서지원 활동이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봉대클럽 '나의 소울메이트'



속초YWCA 상처치유 클럽인 '봉대클럽'은 5월 11일(금) 세미나실에서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의 진행으로 정기모임을 열었다. 이날 주제는 '나의 소울메이트'로 7명의 참석자들은 자신의 마음 속 소울메이트를 찾고, 전문가와 함께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마음의 상처를 봉대로 감싸주는 모임'이란 뜻의 봉대클럽은 매달 1회씩 상담을 진행한다.

원주YWCA

진정희 간사

신축건물 준공예배 및 준공식

원주YWCA는 5월 9일(수) 회관 잔디밭에서 신축건물 준공예배 및 준공식을 열었다. 이사, 활동가, 자문위원, 회원,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건물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나라 운동에 쓰임받기를 바라며 최현영 원주제

회원YWCA 소식



일감리교회 목사의 설교,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격려사, 김태영 원주YWCA 회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인천YWCA 유성은 간사

Y-틴, 대학·청년Y 인준식



인천YWCA는 5월 19일(토)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Y-틴, 대학·청년Y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준식을 진행했다. 20개 Y-틴 클럽과 대학·청년Y 클럽을 인준하고 Y-틴 지도교사, Y-틴 협의회 임원, 대학·청년Y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천YWCA 이사, 위원, 지도교사가 직접 Y-틴 회원과 대학·청년Y에게 배지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춘천YWCA 경소희 간사

꽃바구니 특강



가정의 달을 맞아 춘천YWCA는 5월 15일(화) 강의실에서 무료 회원특강으로 꽃바구니 만들기를 진행했다. 바쁜 일상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가족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 만든 꽃바구니는 회원들의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됐다. 회원특강은 매달 열린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인형극



거제YWCA는 5월부터 11월까지 유아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함께해서 행복해요'를 1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진행한다. 인형극 공연에 앞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성차이와 성차별을 설명하고, 놀이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차별과 가정내 엄마·아빠의 불평등한 가사분담을 연출해 양성평등을 쉽게 전달한다.

김해YWCA 권중숙 팀장

EM활성액 무료배포



김해YWCA는 5월 26일(토) 김해문화의전당 애드무라담에서 열린 시민참여 문화예술축제 '김해문화로플러스'에

참여해 YWCA 환경생명운동을 홍보했다. 2018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슬로우 푸드를 주제로 공연, 토크콘서트, 플리마켓,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 김해YWCA는 유용미생물(EM) 활성액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EM을 이용한 수질개선 활동을 알렸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EM제품 만들기' 일일특강



EM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YWCA는 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품을 시민들이 EM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일일특강을 연다. 4월 영양크림, 5월 치약에 이어 6월 11일(월)에는 비누 만들기를 진행했다. 9월엔 EM에센스 만들기 특강이 열린다. EM일일특강은 EM 사랑동아리가 주관한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생활 속 방사능문제' 특강



'라돈침대' 사태로 생활 속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산YWCA가 5월 16일(수) 방사능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는 특강을 강당에서 열었다.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전문위원인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생활 속 방사능과 방사능 오염식품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강의했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북한문화한마당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는 5월 20일(일) APEC나루공원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Global Gathering 2018)에 참여해 '북한문화한마당' 부스를 운영했다. 북한문화를 알리고자 해마다 부스를 열고 있는 새터민지원센터는 이번엔 남북통일 인식조사 스티커 붙이기, 북한식 개성모양과 판매, 냉장고 없이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만들기, 통일 홀로그램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사천YWCA는 5월 10일(목) 강당에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등이 참석해 대대별 대명, 구호, 목표를 정하고 회원증모의 필요성 인식과 회원운동 확산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도시락·밀반찬 창업' 개강

양산YWCA는 5월 28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K-mom 수제도시락·밀반찬 창업'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지역학습형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과정은 수제도시락·밀반찬 전문

회원YWCA 소식



조리실습,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동아리 활동 등으로 이뤄진다. 수강정원 20명의 3배에 달하는 응시자가 몰려 큰 관심을 보였으며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을 한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울산YWCA는 5월 14일(월) 강당에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라는 주제로 회원증모 운동에 대해 강의하고, 참석자들은 대대별로 회원증모 슬로건을 정하는 등 회원증모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진주YWCA

송광은 간사

'마흔' 40주년 가족의 날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진주YWCA가 5월 15일(화) 강당에서 '가족의 날'을 열었다. 이사, 실무자, 어린이집 교사, 클럽임원, 강사 등 60명이 함께한 가운데 7개국 아

시안 디너, 열린 예배, 공연 등을 통해 YWCA에서 만나고 성장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이주민에게 남아 장학재단 장학금을 수여하고, Y-틴과 대학·청년Y에 1922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해YWCA

박종순 간사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



진해YWCA는 5월 5일(토) 진해장애인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린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에 참가해 YWCA 북한어린이돕기 저금통과 솜사탕을 나눠주고, EM제품을 홍보했다. 전교조창원초등지회와 마을별 참여단체들이 주관해 '잘 놀아야 잘 크다'라는 제목으로 연 이번 행사는 놀이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행복한 장터 등으로 진행됐다.

창원YWCA

김도희 간사

부부의 날 '가족클럽핑'



창원YWCA는 제18회 부부의 날을 맞아 5월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김해시 삼방동 야영장에서 가족클럽핑을 진행했다. 15쌍의 부부가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하나'를 주제로 부부가 함께하는 '사랑의 언어' 특강, 레크리에이션 등 건강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통영YWCA

변은실 간사

애들아 밥먹자!

통영YWCA는 청소년들에게 아침밥과 우리 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5월 10일(목) 오전 7시 충렬여자중



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펼쳤다. NH농협 통영시지부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에서 우리 쌀로 만든 삼각김밥 700개와 음료수를 등굣길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한글반 야유회



포항YWCA는 5월 29일(화) 성인문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글반 야유회를 다녀왔다. 울산 태화강대공원과 심리대숲을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낸 참가자들은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전문가 해설을 통해 고래에 관한 상식을 배웠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글과 그림으로 뽑내는 백일장으로 야유회를 마무리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광양YWCA는 5월 12일(토) 광양MG새마을금고 강의실

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경력자 60여명에게 보수교육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고 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특수학교 '찾아가는 씩크머니' 금융교육



광주YWCA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씨티은행 후원으로 5월 30일(수) 특수학교인 은혜학교에서 찾아가는 씩크머니 금융교육 '착한 기업가 체험'을 진행했다. 92명의 학생들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자원 확보, 생산활동, 거래와 판매 등 자본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자!



남원YWCA는 5월 31일(목)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원시운동본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방안을 모색했다. 출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원시와 남원YWCA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원시운동본부는 이날 출산가정 출생축하금 확대 분할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회원YWCA 소식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연합회 탈핵캠페인 참여



목포YWCA는 6월 5일(화) 한국YWCA연합회가 서울 명동 회관 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열고 있는 불의날 탈핵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제209차를 맞은 탈핵캠페인에는 이사, 실무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YWCA 탈핵생명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들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탈핵 에너지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할 것과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행복드림 아카데미 개강



서귀포YWCA는 2018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1기와 2기를 개강했다. 서귀포시가 지원하는 행복드림아카데미는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장년층 '인생 2모작' 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1기는 5월 12일(토)부터 7월 28일(토)까지, 부동산 컨설팅을 주제로 한 2기는 5월 26일(토)부터 8월 11일(토)까지 진행된다.

순천YWCA

신성의 사무총장

이사회 '평화통일' 해외연수

순천YWCA는 5월 14일(월)부터 5월 18일(금)까지 4박5일간 '평화통일'을 주제로 18명의 이사회가 연해주 블라디



보스톡과 우스리스크를 탐방하는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연해주 일대 발해 옛 성터와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 유허비, 일제강점기 러시아 항일운동의 근거지였던 신한촌 등을 찾아 역사의식과 YWCA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쓰레기매립장' 환경교육



여수YWCA는 이사, 실무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5일(화) 미평동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했다. 평소 쓰레기를 버리기만 할 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번 견학을 통해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었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사랑나눔 디너콘서트' 출연

익산YWCA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전북사랑나눔이 5월 26일(토) 전주 오즈하우스에서 주최한 '사랑나눔 디너콘서트'를 후원하고, 공연에 참여했다. 익산YWCA 합창단은 출연진으로 무대에 올라 뮤지컬 캣츠의 '메모리'와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 모은 250만원 후원금은 5월 28일(월) 전북사랑나눔을 통해 5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됐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너목들,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전주YWCA는 5월 24일(목)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8 전북젠더문화축제에 참여해 '너목들,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야기 터를 운영했다. 여성들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하고,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과 유권자의 바람!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과 유권자의 바람! 여성과 아동을 위한 위급 비상벨 설치 확대, 쉼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 안심 화장실 설치, 민간 안전지킴이 도입 등이 제안됐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논산YWCA는 6월 4일(월)부터 7월 16일(월)까지 논산동성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활용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모습, 너와 나의 소통기술, 느낌으로 소통하기, 말은 나의 얼굴 등 6차례 강의와 토론으로 언어



폭력의 심각성을 알린다.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여성긴급전화 1366 개소



대전YWCA는 5월 9일(수)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여성가족부와 대전광역시 지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24시간 위기상담, 긴급구호 등을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는 대전시 직영 여성회관이 2001년부터 운영했으나 올해 4월자로 대전YWCA로 수탁운영 기관이 변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5개 구청, 6개 경찰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직원연합연수

세종YWCA는 5월 3일(목) 세종시청 조치원청사 대강당에서 직원연합연수를 진행했다. 본부를 비롯해 5개 부속기관(세종YWCA 어린이집,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종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천진 한양대 교목실장이 YWCA 목적문을 교재로 영성과 정체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회원YWCA 소식



제천YWCA

김미경 팀장

녹색생활 지도강사 양성교육



제천YWCA는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주관으로 5월 18일(금) 녹색생활 지도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김경일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기획정책국장의 '자연순환과 환경마크와 녹색제품' 강의와 함께 김혜진 녹색생활 지도강사의 '녹색소비교육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20명의 예비강사들은 녹색소비 생활실천을 다짐했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개설



청주YWCA는 5월 11일(금)부터 6월 1일(금)까지 청년공간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일참청)에서 기독교청년아카데미 4기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청년의 사회적 영성을

높이고 기독교 리더로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기독교청년아카데미는 김덕영 희년함께 사무처장이 '청년 빈곤세대의 하나님 나라와 살림 : 청년에게 희년을!'이라는 주제로 4차례 강의를 했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회원증모 중간 보고회



충주YWCA는 5월 24일(목) 교육장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증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대대별 증모현황을 공유하고 회원증모운동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았으며, 실무자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사랑의 경매를 진행했다. 경매 수익금은 사회선교위원회의 요양원 봉사에서 어르신 간식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2018년 지역별 회원대회가 열립니다

경기지역위원회

7월 17일(화) 안양 연성대학교

동부지역위원회

9월 5일(수) 대구 호텔인터볼고

북부지역위원회

8월 30일(목) 강릉 장로교회

서부지역위원회

10월 23일(화) 전주버울센터

중부지역위원회

8월 29일(수) 대전청소년위캔센터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각계 각종 전문가 논의와 정부 및 국회의 합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상위 2%, 재산 상위 3%* 보유자는 보험료 인상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과표 5억9,700만 원(시가액 12억 원)

직장가입자 99%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되나, 보수(월급) 또는 보수(월급)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집니다.

월보수 상한금액 조정(월 7,810만 원 → 9,925만 원)으로 월보수가 7,8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보수(월급)의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추가 보험료 부과기준 강화

- 보수(월급)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현행] 보수(월급)의 소득 연간 7,200만 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2만 세대 피부양자 제외

소득 연소득(과세기준) 합산금액이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현행] 금융(이자, 배당),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재산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현행]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부양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제외
-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연소득(과세기준) 3,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합이 1.8억 원 이하
[현행]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외에도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인정

'18. 7. 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자는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

서민 부담이 낮아집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비중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593만 세대 월평균 2.2만 원(22%) 인하

평가소득* 폐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포함하여 추정된 소득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 인상시 인상분을 한시적 감액 → 현행 수준의 보험료 부담

5,000만 원 이하 소액재산보유자재산보험료 공제제도 도입
- 재산금액 500만 원~1,200만 원 공제한 후 재산보험료 부과

재산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349만 세대(58%)의 재산보험료 40% 인하

노후자동차, 생계형 및 소형자동차 보험료 면제 또는 감액
보험료 면제 ●9년 이상 자동차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면서 4,000만 원 미만 자동차

보험료 30% 감액 ●배기량 1,600cc 초과~3,000cc 이하면서 4,000만 원 미만인 중형차

자동차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288만 세대(98%)의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